

<2013.07.23.~2013.07.24.>

전 라 일 보

“고창연안,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집중해야”

전발연, 연안관리 중간보고회서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제시

고창지역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질관리강화와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집중해야 해야 하고 특히 고창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바다목장, 바다어장 등 수산업 활

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태풍, 해일 등에 대비한 연안정비사업도 병행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18일 고창군 연안과리지역계획(안)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선정에 따른 생태계 건강성 및 다양성 증진, 그리고 해양생물 서식지 관리 필요성과 습지보존 등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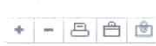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 연안관리여건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라며 그 예로 어업권 감소와 어업환경 악화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무리한 매립사업이나 개발사업보다는 갯벌이나 하구역 생태복원, 생태체험관광사업 전환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수수질 개선을 위한 연안유역 관리강화, 생물권보전지역 기반구축, 생태건강성 증진을 위한 복원사업 지속 추진,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연안경관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안재해 대비 침수예방사업을 추진과 친수공간 확대, 그리고 고품질 연안생태계 복원과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연안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안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만2727㎡에 이르는 고창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안)마련은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정부의 연안관리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

환경일보 > 환경 > 고창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Tweet 0

미투

기사이미지

No Image

고창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불법투기자 지도단속 및 계도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2013년 07월 23일 17:32

환경일보

【고창=환경일보】강남홍 기자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와 고창읍 공무원 35명은 지난 12일 6개조를 편성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혼합배출 금지와 불법배출 또는 불법 투기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을 도모하고 무단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CCTV(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과 불법투기 경고판 50개를 제작 읍면에 배부해 주민홍보 및 불법쓰레기 투기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창읍은 특수시책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23개 마을 좌담회를 통한 분리배출 홍보와 고창천 및 노동저수지 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13개 면에서도 마을좌담회나 이장회의 시기 배부된 홍보물과 분리배출 홍보 방송안을 활용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배출이나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도 단속 및 계도하고 있다.

고창군은 전 읍면에 플래카드 32개를 게첨 홍보했으며 CCTV 5대를 7월중 추가 설치해 양심 없이 버리는 불법 투기자들을 단속할 계획이며 지난 15일부터 불법투기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결국에는 우리 고장과 나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며 후손에게 건강한 지역을 물려주는 소중한 실천임을 알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자신과 자녀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양심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cah321@hanmail.net

환경일보 강남홍 기자

▶ 강남홍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환경일보(http://www.h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